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부천사 송암 권오록 고문 별세



기부천사 송암(松巖) 권오록(權五鹿, 추밀공과 정헌공계, 35세) 고문이 2월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권오록 고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푸르메 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아무도 모르게 10여여원을 기부했다. 또한 고인의 모교인 서울 종로구 계동 대동세무고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원 총 2억원을 기부하여 “권오록 장학금”이 생겼다. ‘권오록 장학금’은 대동세무고 학생 10여 명에게 매년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몇 해 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상북도에 5억원의 특별성금을 기부했다. 경북지역 코로나19 특별성금 중 개인 최고액이었다. 권 고문은 당시 신문을 봤는데 “요세 코로나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기사를 보니까 불현듯 해방되던 해 10살쯤 되던 해인데 고향에서 호열자인가 염병인가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침을 놔주시고 한약을 먹이면서 한발만 띄어 봐라 세 발만 띄어 봐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며 돌아다니셨던 아버지 생각이 나서... 전염병 무서운 줄은 그때 알았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사람이 죽는다는데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이 벌어졌으니 빨리 마리미리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거래은행으로 가서 송금했다”고 말했다.

고인은 기부를 하면서도 “내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얼굴과 이름을 밖으로 알리지 말아 달라”며 철저하게 신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 온 ‘얼굴 없는 기부자’였다. 그러다 뒤늦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유는 “너무 늦게 깨달은 기부의 기쁨을 만인과 나누고 싶어서”였다. “내 아들과 딸, 손주뿐 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오른손이 한 일을 가끔은 왼손이 알아도 된다는 게 새 지론이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행하는 권오록 고문을 조선일보는 ‘기부천사’라고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안동권문의 위상을 사회적으로 크게 제고시킨 사건이었다.

고인은 평생 안동권문이라는 자긍심으로 안동권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며 안동권문에 누가 되지 않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공직생활 중에도 대중회의 종무위원, 편집위원 등을 역임할 정도로 안동권문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그 누구보다 컸다. 2019년 9월에는 능동성역화 추진사업비로 1억을 대중회에 기탁했다. 고인은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늘 고심하다 ‘안동권씨 종보’ 기사를 보고 능동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대중회에 1억원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왕 사업을 추진하면 100만 축진들이 보고 감동하고 100년 200년 후에는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서부터 완성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송암 권오록 고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34년을 일하다 1989년에는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고 1996년 6월 은평구청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하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2021년 3월에는 국민추천 포상 시상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석류장은 순수하게 국민들이 추천하여 수상한 국민훈장이다. 또한 1989년은 노태우 대통령, 1996년은 김영삼 대통령, 2021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세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훈장을 받는 진기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권형완 편집국장

부산종친회 설 세배 오찬회 개최



부산종친회(회장 권영현)에서는 음력 정초에 웃어른께 세배를 올리는 어른 공경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1일(음력 정월 초사흘날) 정오에 부산 전포동 종친회 사무실에서 합동 세배(歲拜) 오찬회를 가졌다.

종친회 산하 장년회, 청년회, 부녀회에서 주관한 오찬회에는 고문, 자문위원 등 일가 어른신을 비롯한 종친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진행은 먼저, 장년회, 청년회, 부녀회 회원들이 함께 원로 어른신들께 세배를 드린 후 탁자를 중심으로 서서 맞절로 설 인사를 나누었다.

송산(영현) 종친회장은 문안 인사를 통하여 종친 어른신들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고, 뱀은 새로운 시작,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하니 을사년에 부산종친회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기를 소망하였다. 아울러 송암(성용) 명예회장과 주관 단체인 장년회 영우 회장, 청년회 부현 회장 및 부녀회 정희 회장도 차례로 나와 어른신들께 건강과 만복(萬福)을 축원하

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어진 어르신 덕담 순서에는 덕산(영훈) 자문위원, 운산(중원) 원로회장, 송계(길상) 고문 등 연장자 순으로 나와 모임 을 마련해 준 데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종친 가정마다 평안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덕담을 건넰었다. 특히 송계(길상) 고문은 ‘세월 따라 어른을 찾아뵙는 전통 세배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합동 세배를 마련한 이래 15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 설명을 곁들여서 축진 어른신과 청장년, 부녀회원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였다.

장소를 옮겨 오보쌈 식당에서 계속된 오찬회는 송산 종친 회장 선창으로 축배를 들고, 준비한 다과와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주고받고, 일족 간 정리(情理)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주관 단체에서 마련한 양말세트 선물로 오찬회가 더욱 뜻 깊게 마무리되었다.

권재영 부산 사무국장

경산시종친회, 권오홍 회장(권치과의원 원장) 감사패 수상

긴 시간동안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경산시종친회 권오홍 회장(북야공과 35세)은 2월 14일 (재)경산시장학회(이사장 조현일)로부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오랜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권오홍 회장은 “경산시장학회가 경제적·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장학회에서 더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쳐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긴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201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산시장학회 이사로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학업 환경 조성 과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권오홍 회장은 경북치과의사회장, 국제라이온스 356-E(경북)지구 총재, 경산 필하모니 단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희망나눔 캠페인, 장학기금 기탁, 이웃돕기 성금, 착한가게 등록,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등 꾸준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지역민의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국민기자뉴스 권성욱 부장

동정



▲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이 1월 21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는 ‘2025 지방의회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평소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열정을 쏟으며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 오며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세련 선문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교수가 수산업 분야 질병확산 방지 공로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14년간 수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감염성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정밀진단법 개발과 수산질병관리원 운영을 통한 양식장 질병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학내에서 운영 중인 수산질병관리원을 통해 양식장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등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이 1월 6일 제11대 서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소방서 직원 80여 명과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권선욱 소방서장은 서울 출신으로 중동고, 호서대학교 소방학과,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1년 제11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여 중앙소방학교 지도계장, 인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국민안전처 소방상황센터 팀장, 강원도소방학교장, 경기북부소방본부 예방과장 등을 역임했다.

▲ 권태산 스트라드비전 최고 운영 책임자(COO)가 자율주행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COO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미국 및 유럽지역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며 국내 자율주행 기술 세계화에 이바지했으며, 13개 이상의 글로벌 자동차 OEM사들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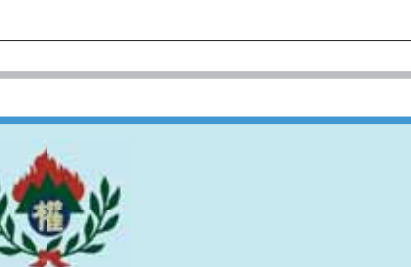
이끌며, 한국의 미래모빌리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권영욱씨가 강릉차인연합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권 신임 회장은 강릉 출신으로 강원도 강릉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공연구원 사임당 다도대학원을 수료했다. 사임당 다도대학원 회장 등을 역임, 현재 사임당다우회 회장, 말차로, 명유당 대표를 맡고 있다.



▲ 권종오 목사가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에 지난 2월 13일 취임했다. 권종오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참 좋다. 선배 목사님들께 지혜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인품을 많이 배웠다. 또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 많이 누렸다”며 “직전 본부장께서 위낙 훌륭해 부담스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흔자 하는 일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 주실 줄 믿는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 함께 전진하자”고 말했다.



▲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서울대 상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선임됐다. 권 신임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75학번으로 1979년 LG전자에 입사해 44년간 LG그룹에 몸담은 LG맨이다. 2008년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2009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2012년 LG화학 전지 사업본부장 사장, 2015년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냈다. 이후 2018년 LG 대표이사 부회장, 2021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했다. 안동권씨 대중회 부회장이다.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안내



안동권문(權門)의 성전(盛典)이요 자랑인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영주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32개 지역 해외 1개(일본) 청·장년회가 참여하는 본 대회에 전국 축진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우리 권문의 한마음 잔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회 개요-

- ❖ 일시: 2025년 4월 27일 (일) 오전 10시
- ❖ 장소: 영주 시민운동장 (영주시 가흥동 산21-1)
- ❖ 주최: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 ❖ 주관: 안동권씨 영주청년회
- ❖ 후원: 안동권씨 대중회, 영주종친회, 장년회, 부녀회
- ❖ 내용: 개회식, 종목별 경기, 공연 및 장기자랑 등
- ❖ 대상: 전국 33개 지역 청·장년회 및 전국 종친회

〈후원계좌 : 농협 351-1329-3143-43 [예금주:영주청장년회]
〈광고접수 : kil73@hanmail.net〉
대 회 장 : 권오현 010-3508-6951
준비위원장: 권오국 010-3522-6433
사 무 국 장 : 권용일 010-3807-2365
사 무 차 장 : 권성환 010-4500-8119

안동권씨 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위원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512-1 (안동권씨영주청년회사무실1층회관)
문의 : 사무국장 010-3807-2365
054-633-2365 FAX:054-633-2366

2025. 3. 1.

안동권씨 영주청년회